

[부산선관위 주최 선거토론 방송 대한 부산민언련 의견]

## 유권자 시청권 보장·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해 요청드립니다

○ 선거관리위원회 주최 TV 토론회 추진일정이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.

(2018. 6.1 기준)

구분	후보	방송시간	방송사
부산시장	오거돈 서병수 이성권 박주미	6/5 23:15~24:45	KBS부산·부산MBC
	이종혁(1인 대담)	6/6 00:45~01:15	KBS부산·부산MBC
부산시 교육감	함진홍 박효석 김성진 김석준	6/4 23:15~24:45	KBS부산·부산MBC
비례시의원	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	6/7 10:00~11:30	KBS부산
	대한애국당 녹색당	6/5 14:00~15:00	KBS부산·
기초자치단체장	방송 시간 조정으로 유동적		

○ 미디어선거 시대에 방송토론회는 후보가 자신의 정책과 이력을 광범위한 유권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. 유권자는 토론 공간을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사회의 현안을 습득하고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·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얻게됩니다. 선거관리위원회 주최 선거 TV토론회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.

○ 그런데 이번 선거관리위원회 TV토론회 추진일정과 관련해 일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 의견제시합니다.

- 먼저 방송 시간이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나 평일 오전, 낮 시간대로 편성되어 유권자의 시청권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. 이전에 진행된 방송사 자체 토론회보다 불합리한 시간대입니다. 계획대로면 이종혁 부산시장 후보 대담은 자정을 훌쩍 넘겨 진행되어 후보에게도, 유권자에게도 불합리한 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유권자 시청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시간대로 변경을 요청드립니다.

- 선거관리위원회와 주관 방송사는 선거 및 TV토론을 정책선거로 이끌 책무가 있습니다. 이번 토론회 구성에서 자유토론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. 다양한 주제로 토론이 진행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지만 자칫하면 후보간 상호 비방으로 토론시간을 허비할 우려도 있습니다. 또한 유력 후보군에 토론 쏠림이 발생하여 소외되는 후보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선거관리위원회와 주관 방송사는 TV토론을 정책선거로 이끌 책무가 있습니다. 하여 상호비방과 특정 후보군에 대한 쏠림을 막고, 자유토론에서 2인 이상의 후보에게 질의하도록 하고 후보별 토론 총량제를 두는 등 정책대결과 균

등한 토론 기회 제공을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드립니다.

- 공식 선거운동기간에 돌입했음에도 기초자치단체 선관위 TV토론 일정은 아직 확정 발표되지 못했습니다. 광역단체보다 시청 대상도 적고 관심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. 조속히 확정하고, 유권자에게 적극 홍보하기를 요청드립니다.